2026.11.12.

출장 결과 보고

– 2026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교육연수 –

「AI 대전환 시대! 행정DX·지역활성화 사례 학습」

국외 조사 보고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 2026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교육연수 -

「AI 대전환 시대! 행정DX·지역활성화 사례 학습」

국외 조사 보고

Ⅰ 출장개요

■ **출장 목적**

○ 행정통합·광역협력 사례(루르 광역연합, 아헨 도시권역)를 통해 광역 단위 기능 재배분 및 협업 구조 학습

○ 행정 DX·AI 사례(루르, EUREF, 아헨)를 통해 광역 데이터 공동 활용 및 실증 기반 도입 방식 파악

○ 유휴자산 재생·에너지 전환·R&D 생태계 사례(7개소)를 통해 지역 맞춤형 균형성장 전략 모색

■ **출장 기간: 2026. 10. 18.(일) ~ 10. 26.(월) / 7박 9일**

■ **출장 국가 및 도시: 네덜란드, 독일**

■ **출장자: 강동준(연구위원), 윤세정(행정2급)**

■ **담당업무:**

출장자	직급	부서	업무 내용
강동준	연구위원	교통물류연구부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기관 교류
윤세정	행정2급	연구기획실	

○ 출장 일정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비고
10. 18. (일)	인천 → 암스테르담	• 출국: 인천→암스테르담(KE925 11:55-18:55)	
10. 19. (월)	암스테르담	• **(기관방문①) De Ceuvel** - 산업 유휴부지 활용 친환경 도시재생 • **(현장답사①) Zuidas(주이다스) 혁신지구** -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10. 20. (화)	암스테르담 ↔ 로테르담	• **(기관방문②) Markthal Rotterdam(로테르담 마켓홀)** - 민관협력 복합 도시재생(시장+주거) • **(현장답사②) Portlantis(로테르담항)** - 항만 에너지 전환·풍력·수소	
10. 21. (수)	암스테르담 → 에센 → 쾰른	• **(기관방문③) Regionalverband Ruhr(에센)** - 광역행정 협력 및 행정 DX	
10. 22. (목)	쾰른 → 뒤셀도르프 → 에센 → 아헨	• **(기관방문④) EUREF-CampusDüsseldorf(뒤셀도르프)** - 에너지·모빌리티 실증 및 디지털 행정 • **(현장답사③) Zollverein(에센)** - 탄광 산업유산 재생	
10. 23. (금)	아헨 → 프랑크푸르트	• **(기관방문⑤)** Städteregion Aachen(아헨) - 기초지자체 기능 통합 및 광역 디지털 행정	
10. 24. (토)	프랑크푸르트 ↔ 오베르로스페	• **(현장답사④)** Oberrosphe (헤센주) - 주민참여형 바이오에너지 마을	
10. 25. (일)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크	• **(현장답사⑤)** Heidelberg Technology Park - 연구개발·기술사업화 혁신 클러스터	
10. 26. (월)	인천	• 귀국: 프랑크푸르트→인천(KE94619:45-15:30(+1))	

※ 매일 저녁 연수 디브리핑을 통해 방문지별 시사점 및 국내 적용 가능성 논의

Ⅱ 출장 결과

1 방문국가 개요

■ 네덜란드: 지역 특성 활용형 지방 활성화

○ 대도시권(암스테르담·로테르담·헤이그·위트레흐트) 중심 경제활동, 지역 간 격차 대응을 위해 지역별 산업·자연환경·인적자원 활용

○ 농촌은 농업·식품산업 첨단화, 북부는 에너지 전환·친환경 산업, 중소도시는 대학·연구기관 중심 혁신 생태계 구축

○ 중앙정부 일방 결정보다 지방정부·지역기관·기업·대학·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 활용

■ 독일: 중앙·주정부 협력형 맞춤 지역 활성화

○ 통일 이후 동·서독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 중앙정부와 주정부 협력으로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생활환경 개선 추진

○ 산업지역은 신산업 유치, 농촌은 디지털·관광·재생에너지, 동독 지역은 R&D·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특성별 맞춤 추진

○ 연방경제에너지부(BMWE)의 지역경제·중소기업·산업정책 지원과 주·지방정부의 자체 정책이 병행되는 구조

2 기관방문

■ 방문지 1) De Ceuvel (드 큐벨)

소재지 / 설립	암스테르담 북부 / 2014년
성 격	옛 조선소 부지를 재생한 친환경 도시재생·창의산업 복합공간
담당자	Ms. Tessa Hermelink (Cultural Program Manager)

○ 주요 내용

- 폐선박을 육상에 배치·개조하여 사무·작업공간으로 활용, 신축 없이 업무공간 확보 (순환경제적 접근)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물·자원 순환, 식물을 이용한 토양 정화 등 친환경 기술을 공간 운영에 적용
- 창업가·예술가·디자이너·연구자가 입주하고 카페·행사·문화공간을 병설하여 주민·방문객에 개방
- 연구실 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서 검증하는 리빙랩 성격 보유

- 암스테르담시는 유휴부지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은 공간 조성·운영을 담당하는 협력체계

❍ 시사점

- 유휴공간을 새로운 지역자산으로 인식, 시설 조성보다 입주자·주민 활동이 지속되는 운영체계 설계가 관건
- 재생사업이 환경문제 해결(탄소중립·자원순환)에 기여하도록 설계
- 건축형태 복제가 아닌 지역별 차별화 필요 (폐공장 지역=산업·창업, 농촌=농업기술·로컬푸드, 문화자원 지역=문화관광)

❍ 질의응답 요약

Q.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A. 암스테르담시는 유휴부지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건축가·창업가·지역사회가 조성·운영에 참여. 국내 유휴 공유재산 활용 및 민관협력형 재생사업의 참고 사례

Q. 국내 적용 시 시사점은?

A. 폐산업시설·유휴 공공시설·인구감소지역 방치 공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재활용하고 주민·청년·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율 운영체계 마련. 연구원은 유휴자원 조사, 사업모델 개발,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지원 가능



드큐벨 전경



옛 포커 항공기 공장의 역사 안내시설

〔그림 1〕 De Ceuvel (드 큐벨)

■ 방문지 2) Markthal Rotterdam (로테르담 마켓홀)

소재지 / 개장	로테르담 도심 Laurenskwartier / 2014년 10월
성 격	공공·민간 협력 복합 시장시설 (시장+주거+상업+주차)
담당자	Mr. Evert Vrijenhoek (Manager)

❍ 주요 내용

- 연면적 약 10만㎡, 약 40m 아치 구조에 주거 228세대(임대 102·분양 126), 상점 96개, 지하주차 약 1,200면 결합
- 아치 천장 예술작품 'Cornucopia'(약 11,000㎡)로 관광·문화 명소화, 개장 첫 주 약 35만 명·1년 누적 약 800만 명 방문
- 로테르담시가 도심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개발사(Provast)가 사업 추진, 내부 시장은 시민·관광객에 개방
- 건설 중 발굴된 고고학 유물 전시, 지역 상인 참여 등 시장문화와 역사성 결합

❍ 시사점

- 단일 시설 개발보다 시장·주거·문화·관광 등 기능을 연결하여 상시 수요 확보(주거 결합이 핵심)
- 공공은 도시계획·기반시설, 민간은 개발·운영을 맡는 역할 분담으로 공공적 공간 조성 가능
- 상징적 공간은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수단이며, 성과는 방문객 수뿐 아니라 상인·주민·주변 상권 연계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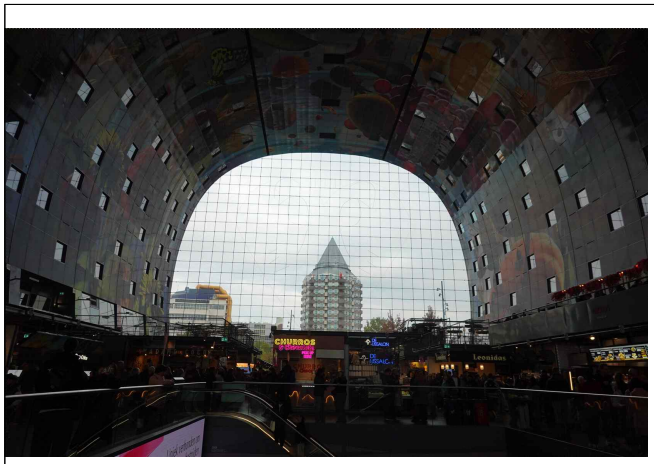
❍ 질의응답 요약

Q.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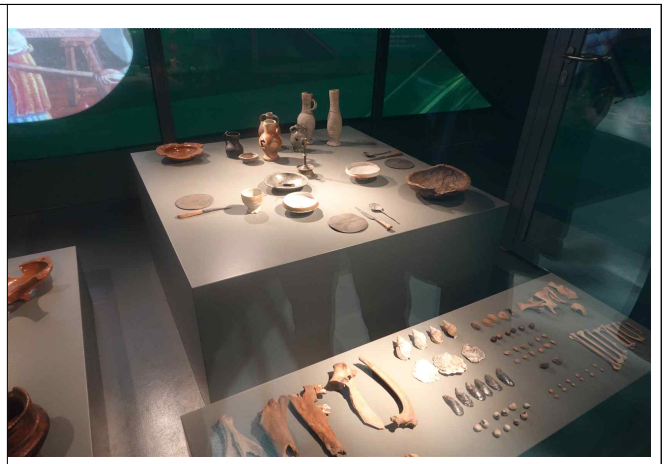
A. 로테르담시가 시장·주거 복합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개발사(Provast)가 사업 추진.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적 공간 조성 가능성 확인

Q. 국내 적용 시 시사점은?

A. 전통시장·원도심은 시설개선 중심에서 상업·문화·관광·주거 융합 복합개발로 전환 필요. 상권 특성·소비수요 분석, 주변 소상공인 상생방안 연구가 필요



마켓홀 내부



마켓홀 건설 중 발굴된 유물

〔그림 2〕 Markthal Rotterdam (로테르담 마켓홀)

■ 방문지 3) Regionalverband Ruhr (루르 광역연합, RVR)

소재지 / 개장	독일 에센 / 1920년
성 격	11개 독립시·4개 군(약 510만 명)을 아우르는 광역행정·공간계획 기구
담당자	Ms. Tana Petzinger (Head of Regional Development Dept.)

❍ 주요 내용

- 지역계획(통합 광역계획 'Regionalplan Ruhr' 2024년 발효), 경제·관광 진흥, 녹지 관리, 문화·체육 등 광역 업무 수행
-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광역의회(루르 의회)를 통해 의사결정, 행정협력에 민주적 대표성 결합
- 산업유산 관광루트, 엠셔 경관공원, 광역 자전거도로망 등 다수 지자체에 걸친 사업 연계 추진
- [행정 DX] 전자문서·전자파일 기반 업무 프로세스 전환, 공간정보 공동 활용(GEONETZWERK.RUHR), 공공데이터 통합 개방(Open Data Ruhr)
- [행정 DX] RuDi-Ruhr Digital 네트워크로 전자문서·애자일·AI 활용 사례 공유, 광역기관은 직접 서비스보다 플랫폼 역할 수행
- DX 전담조직이 IT 인프라뿐 아니라 조직구조·업무 프로세스·전략까지 함께 담당

❍ 시사점

- 정책 단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권·경제권으로 설정, 도시 간 경쟁보다 협력 강화
- 산업쇠퇴(석탄·철강)를 산업유산 활용, 녹지 전환, 관광·문화 자원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으로 전환(수십 년의 장기 과정)
- 광역 DX는 개별 시스템 구축만으로 부족하며 데이터 표준화·공동 인프라·우수사례 확산 병행

필요 (※ 실제 비용절감 효과는 사업별 성과분석 필요)

○ 질의응답 요약

Q. 중복행정과 비효율적 예산집행은 어떻게 개선하는가?

A. 지역계획·녹지·산업유산·관광 등 광역 추진이 필요한 업무를 공동 수행. 다만 실제 비용절감 효과는 사업별 성과분석으로 확인 필요

Q. 지자체 간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A. 직선 광역의회(루르 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지역계획을 결정. 국내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광역행정 협력체계 운영에 참고

Q. 국내 적용 시 시사점은?

A. 교통·환경·산업·관광·공공시설 등 협력 분야에서 공동계획, 역할 분담, 재원 조달, 성과관리 체계 마련. 연구원은 광역행정 수요 분석, 중복사업 진단, 비용·편익 분석 지원 가능



루르홀 전경



루르 광역연합 설명회

〔그림 3〕 Regionalverband Ruhr (루르 광역연합, RVR)

■ 방문지 4) EUREF-Campus Düsseldorf (오이레프 뒤셀도르프 캠퍼스)

소재지 / 개장	독일 뒤셀도르프 / 2021년 (베를린에 이어 독일 두 번째 캠퍼스)
성 격	에너지 전환·스마트 모빌리티·지속가능 기술 혁신 단지(리얼랩)
담당자	Mr. Jörg Philippi-Gerle (Location Manager)

○ 주요 내용

- 임대공간 약 8만㎡, 약 4,825명이 활동, 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대학이 한 공간에서 기술 개발·실증

- NRW Mobility Hub 기반 전기·수소·자율주행·공유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양방향 충전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 안정화에 활용하는 구상
- [행정 DX] BIM을 건축 정보의 중앙 데이터원천으로 활용, 디지털 트윈(Cyclomedia) 기반 도시공간 AI 분석
- [행정 DX] 뒤셀도르프시는 2025년 6월부터 건축허가 절차를 신청·심사·처분까지 전 과정 디지털화, EUREF에서 서비스·데이터 인프라 방향 논의
- EUREF-TalentCampus를 통한 전문교육·석사과정(2025/26학년도 개설) 등 인재 양성 연계

❍ 시사점

- 지자체가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실증 후 행정에 확산하는 협력형 DX 모델
- "실증 → 검증 → 확산" 경로로 정책·기술을 사전 검증한 뒤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역의 기존 산업·연구 강점과 미래산업(에너지·모빌리티)을 연결하고, 환경정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 질의응답 요약

Q. 스마트빌딩·에너지 관리기술이 공공시설 운영 효율에 주는 시사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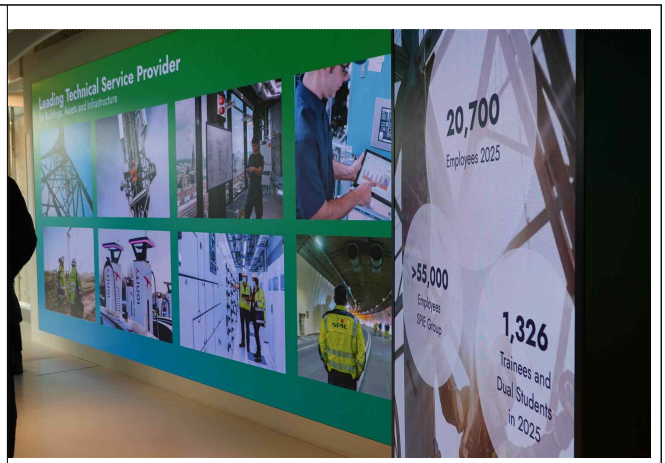
A. 태양광·열펌프·ESS를 연계한 지능형 에너지 관리체계 운영. 공공청사에 도입 시 운영비 절감, 시설관리 효율화,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 가능

Q. 민관산학 협력체계의 시사점은?

A. 지자체가 모든 디지털 혁신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보다 민간·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협력모델이 중요. 시도연구원이 협력체계 구축 및 DX 정책 개발 역할 수행 가능



캠퍼스 내 다목적 홀(회의, 행사 등)



뒤셀도르프 캠퍼스 설명회

〔그림 4〕 EUREF-Campus Düsseldorf (오이레프 뒤셀도르프 캠퍼스)

■ 방문지 5) Städteregion Aachen (아헨 도시권역, SA)

소재지 / 개장	독일 아헨 / 2009년 10월
성 격	Kreis Aachen을 해산하고 출범한 광역 행정조직 (8개 시+2개 지자체)
담당자	인구 약 58만 명, 면적 약 700㎢ (아헨시 약 26만 명)

❍ 주요 내용

- 아헨시는 독립시 지위를 유지하면서 보건·사회복지·교육·환경·교통·재난·디지털 등 광역 기능을 SA에서 공동 수행
- 도시(아헨)와 농촌(몬샤우·시메라트·뢰트겐 등)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상호 보완
- 라인란트 갈탄산업 단계적 종료에 따른 구조전환 대응, Charlemagne Grenzregion 등 벨기에·네덜란드와의 국경 간 협력
- [행정 DX] 온라인 행정서비스 포털(차량등록·건축허가·증명·복지), 통합 전자신원체계 BundID 활용
- [행정 DX] 디지털화·IT 전담부서 설치, 전자문서관리시스템(DMS)·온라인 서식 등 업무 프로세스 전자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 시사점

-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권 중심의 정책 설계, 통합 후에도 개별 자치권 보장 + 공통 기능의 광역 처리
- 중심도시(연구·교육)와 주변지역(산업·주거·관광·자연)의 기능 분담 및 연계
- 광역 DX를 통해 주민이 행정구역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 검토

❍ 질의응답 요약

Q. 행정통합으로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는가?

A. 10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행정체계로 출범. 개별 자치권은 유지하면서 광역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 수행하여 중복 업무 축소 및 공동서비스 제공

Q. 내부 행정업무 효율화는 어떻게 하는가?

A. 디지털화·IT 전담부서 설치, DMS·디지털 행정기록·온라인 서식 등으로 종이 중심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

Q. 국내 적용 시 시사점은?

A. 인구감소지역·중소도시에서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전문인력 공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제고. 연구원은 통합 비용·편익 분석, 공동행정 수요조사, DX 성과평가 지원 가능



아헨 도시권역 설명회



아헨 도시권역 지도

〔그림 5〕 Städteregion Aachen (아헨 도시권역, SA)

3 현장답사

■ 현장답사 1) Amsterdam Zuidas (주이다스 혁신지구)

소재지 / 시작	암스테르담 남부 / 1998년
성 격	국제 금융·비즈니스 지구의 복합 도시개발 (약 245ha)
규모(2024)	거주 약 5,300명, 근무 5만 명 이상, 학생 약 3.2만 명, 기업 약 2,000개

❍ 주요 내용

- 업무 중심 지구에서 주거·상업·문화·공공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 도시로 전환 (2030년까지 100만㎡ 이상, 장기 약 204만㎡ 개발)
- Kenniskwartier에 VU Amsterdam·Amsterdam UMC 등 교육·의료·연구기관 집적, 기업과 근접 배치
- Zuidasdok 사업으로 Amsterdam Zuid역을 교통거점화하고 A10 일부 구간 지하화,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구조
- 신규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준, 가스 비연결, 열저장·지역난방, 빗물 저장·녹지 확충 등 지속가능성 적용

❍ 시사점

- 기업 유치·건물 건설만으로는 부족하며 주택·교통·문화·녹지를 함께 조성해야 지속적 활성화 가능
- 고밀 개발 속에서도 공공공간·녹지를 확보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을 인접 배치하는 방식 참고

■ 현장답사 2) Portlantis (포틀란티스 풍력단지)

소재지	로테르담항 Maasvlakte 2 (2025년)
성 격	스마트 항만·에너지 전환·해상풍력을 기존 항만과 연계한 미래형 산업공간

❍ 주요 내용

- 단일 풍력발전소가 아니라 로테르담 항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미래산업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 넓은 항만 부지와 산업시설의 공간적 장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항만·산업 수요와 직접 연결
- 풍력→수전해 수소→산업·운송 연계로 에너지·산업·환경·물류를 하나의 지역개발 체계로 통합
- 기존 항만·물류·인력·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구조를 전환, 경제의 연속성 유지
- 확대 과정의 경관·소음·생태·주민 수용성 관리 필요

❍ 시사점

- 에너지 전환과 지역발전을 별개 정책이 아닌 하나의 전략으로 연계
-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을 단순 발전시설 설치지로 보지 않고 수소·친환경 제조·에너지 저장산업 등으로 확장하는 전략 필요

■ 현장답사 3) Zollverein Industrial Complex (졸버라인 탄광 단지)

소재지 / 연혁	에센 / 1847년 개발 시작, 1986년 탄광 폐쇄(1993년 코크스 공장 종료)
성 격	산업유산 보존형 도시재생,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약 100ha)

- 주요 내용
- 철거 대신 보존·적응형 재활용 선택, 박물관·문화·디자인·창조산업·업무 기능 도입 (90여 개 건축물 활용 과제 추진)
- IBA Emscher Park(1989~1999) 재생사업의 핵심 대상, 졸버라인재단이 보존·관리·활용 총괄
- 1999년 산업문화도로(Route der Industriekultur)의 핵심 거점으로 연결되어 루르 전체 구조전환과 연계
- 폐광 이후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산업문화·정체성 자원으로 전환

❍ 시사점

- 폐산업시설을 '낡은 공간'이 아닌 역사·기술·건축이 축적된 자산으로 인식
- 국내 폐광·폐공장 개발 시 일괄 철거 대신 보존 부분과 신규 기능 도입 부분을 구분하는 사전 진단 필요

- 단기 개발사업이 아닌 장기(폐쇄~세계유산 등재 약 15년) 과정으로 접근

■ 현장답사 4) Oberrosphe (오베르로스페)

소재지	독일 헤센주 Wetter시 (Burgwald 산림 인접 농촌 마을)
성 격	주민 협동조합 기반 에너지 자립형 바이오에너지 마을 (Bioenergiedorf Oberrosphe eG, 2007.2 설립)

○ 주요 내용

- 주민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이 목재칩 바이오매스 난방시설(2008.10 가동)과 약 7㎞ 지역난방망 구축·운영
- 태양광 확대(협동조합 77㎾p → 155㎾p, 2009), 주민 개별 투자 병행
- 지역 목재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외부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고 가치가 지역 내에서 순환
- 2026년 약 3,000㎥ 대형 열저장시설 구축 추진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로 기존 인프라를 지속 발전

○ 시사점

- 대규모 개발 없이도 자연자원·주민 공동체·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발전 기반 구축 가능
- 외부 기업의 발전시설 설치·외부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소유·운영에 참여하고 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 필요

■ 현장답사 5) Heidelberg Technology Park (하이델베르크 테크놀로지 파크)

소재지/ 설립	독일 하이델베르크 / 1984년
성 격	연구기관·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기술혁신·기술사업화 거점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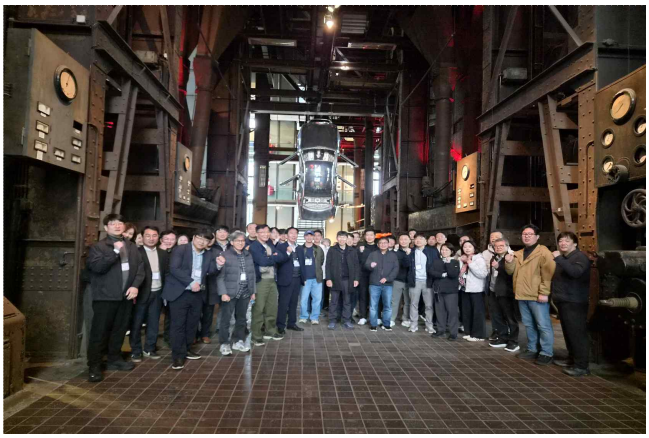
- EMBL, DKFZ, ZMBH, 막스플랑크 의학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기관 집적을 기반으로 생명과학·의료기술에서 성장
- 창업지원 프로그램(Up2B, Life Science Accelerator, KI LAB, KI Garage)으로 연구실 단계에서 시장 진입까지 지원
- AI·디지털·딥테크로 영역 확대, Heidelberg Innovation Park(약 15만㎡, 2026년 약 1,000명

종사) 신규 거점 조성

- 연구 → 창업 → 기업 성장 → 기술이전의 선순환으로 지역 혁신경제 구축

○ 시사점

- 우수 대학·연구기관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연구성과를 기업·창업으로 잇는 중간 지원조직이 핵심
- AI를 독립 산업으로만 육성하기보다 지역 기존 강점(바이오·의료 등)과 결합 ("지역 주력산업 × AI")

	
졸버라인 탄광 단지	포틀란티스 풍력단지

〔그림 6〕 현장답사지

4 시사점

■ 종합평가

○ 방문지 유형: ① 광역행정 통합·협력(루르, 아헨) ② 행정 DX·기술 실증(루르, EUREF, 아헨) ③ 지역활성화(De Ceuvel, 마켓홀, Zuidas, Portlantis, 졸버라인, 오베르로스페, 하이델베르크)

○ 공통 교훈 4가지

- 정책 단위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기능과 생활권이어야 함 (루르, 아헨)
- 성패는 시설이 아니라 운영주체와 그 공간의 활동이 좌우 (De Ceuvel, 졸버라인, 오베르로스페)
- 기존 자산은 철거보다 전환이 비용·정체성 측면에서 유리 (졸버라인, Portlantis, De Ceuvel)
- 성과까지 10~30년 소요되는 장기 과정이며 권한·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루르 1920→2009→2020, 졸버라인 1986→2001→현재)

정책 영역	핵심 방문지	국내 연계 정책수단
행정통합·광역협력	루르 광역연합, 아헨	통합특별시 사무 재배분,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광역 공간계획

정책 영역	핵심 방문지	국내 연계 정책수단
행정 DX·AI	루르 광역연합, EUREF, 아헨	광역 데이터 공동 인프라, DX 실무 네트워크, 실증–조달 연계
유휴자산·원도심 재생	De Ceuvel, 마켓홀, 졸버라인	운영주체 우선 공모, 공유재산 특례, 복합개발
에너지 전환·지역경제	Portlantis, 오베르로스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주민참여 이익공유, 농촌특화지구
연구개발 생태계	하이델베르크, EUREF, Zuidas	RISE, 테크노파크 기능 재정립, 지역 주력산업 × AI

■ 영역별 정책 시사점

❍ 행정통합·광역협력: "출범"보다 "기능 재배분"이 성패를 좌우

- [국내 현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2026.7), 대구·경북 2028.7 출범 목표 입법 추진, 대전·충남 논의 재개 단계, 충청광역연합 권한·재정 확대 논의 (※ 원본 보고서 기준)
- 통합과 연합은 양자택일이 아닌 단계·기능의 문제 → 권역 여건에 따라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이 현실적
- 출범 이후 사무 재배분이 핵심 → 중심도시 자치권은 보장하되 보건·복지·교육 등 공통 기능은 광역 단위로 모으고, 인센티브 종료 후에도 유지 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계적 권한 확대 로드맵 필요 (루르: 계획권 2009 → 의회 직선 2020)
- 외곽·농촌 지역 소외 방지를 위해 재정 배분 기준·기능 분담을 법령·조례에 명시, 통합 전 베이스라인 확보로 사후 평가 가능하게 설계

❍ 행정 DX·AI: 기술이 아니라 "광역 협업 구조"를 학습

- [독일 현황] 온라인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독일이 한국보다 앞서 있지는 않음 (OZG 1차 목표 미달성, 2024년 법 개정) → 개별 기술보다 광역 데이터 거버넌스·지식공유·실증 방식이 학습 포인트
- 광역 데이터 공동 인프라 구축: 통합·연합 권역 단위 공간정보·행정데이터 표준 정합 및 공동 플랫폼 활용
- DX·AI 실무자 네트워크 상설화(루르 RuDi 사례): 시·도와 시·군 DX 담당자의 성공·실패 사례 공유로 시행착오 감소
- 통합특별시 정보시스템 통합 계획 사전 수립: 과도기 서비스 연속성, 통합 비용, 데이터 표준화 일정
- "실증 → 조달 → 확산" 경로 마련(혁신제품 시범구매 연계), 공공시설 에너지·운영 데이터(BEMS) 광역 통합 분석
- 공동화·집중화에는 회복력 설계(이중화·재해복구) 병행 (2025.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사례)

○ 지역활성화: "시설 조성"에서 "운영과 전환"으로

- 운영주체 우선 선정 방식 시범 도입(De Ceuvel 사례), 유휴 공유재산 대부기간·사용료 특례 검토
- 폐광·석탄화력 폐지 예정지역은 산업유산 진단(보존·전환·철거 구분)과 전담 운영조직부터 시작, 개별 거점 대신 권역 연계 루트로 기획
- 원도심 앵커시설과 주거 결합(마켓홀 사례): 전통시장 지원을 시설 현대화에서 주거·생활SOC 복합개발로 확장
- 에너지 전환을 지역경제 정책으로 다룸: 항만·산단은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연계(Portlantis), 농촌은 주민 소유 열에너지 사업(오베르로스페) → 분산에너지법·주민참여 이익공유·농촌특화지구를 묶어 시범사업 설계
- 연구개발 생태계는 중간조직이 핵심: 테크노파크 역할을 공간 임대에서 기술사업화로 재정립, 지역 AI 전략은 "지역 주력산업 × AI"로 차별화
- 사업 주기 확대: 3~5년 공모·단년도 평가 방식을 다년도 포괄 지원, 운영비·인력 지원 확대, 평가 주기 연장 검토


THE
INCHEON
INSTITUTE